

련 제  
무용지식

# 《무용예술의 본질과 특성》

무용예술의 고유한 본성과 그 특성을 옳게 인식하는것은 무용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용이란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예술적물동으로 형상한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용예술의 묘사대상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본표현수단으로 하고있는가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무용예술의 본질을 밝혀주시였다.

무용이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예술적물동으로 형상한다는데 무용예술의 본질이 있다.

무용은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기본묘사대상으로 하고있으며 묘사대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놓여있다. 참다운 인간과 그 생활을 생동하게 그릴 때만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줄수 있으며 커다란 영향력을 줄수있다. 지난 시기에도 무용예술이 인간과 그 생활을 묘사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을 참답게 그린다는것이 어떤것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똑바로 밝히지 못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며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옳바르게 풀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었다.

### △ 무용예술의 특성

① 무용은 춤가락을 기본표현수단으로하는 물동의 예술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용에서 소도구와 무대장치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본으로 될수는 없습니다. 소도구와 무대장치보다 우선 춤가락이 있어야 합니다.》

춤가락은 일정한 선률과 장단의 흐름을 타고 진행되는 형태적으로 세련되고 조형적으로 다듬어진 부위동작들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작들의 결정체를 의미한다.

무용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춤가락은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시각조형적으로 섬세하게 형상한다. 때문에 관객들은 춤가락을 보면서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보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무용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실제적인 인간유기체의 산 움직임으로 형상되는물동의 예술이다. (다음호에 계속)

## 무용자료안내

<조선민속무용기본동작>  
비디오테이프 ¥ 3,500.-  
음악테이프 ¥ 1,500.-

<조선무용기초동작 1, 2 단계>  
비디오테이프 ¥ 3,500.-  
음악테이프 ¥ 1,500.-

CD판<조선무용아동곡집 15곡>  
¥ 2,500.-

※ 이 CD는 무용을 자유로히 창작할수 있도록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문예동중앙  
TEL 03-3817-0431에!

조선무용통신 제2호 기사가 아래 홈페이지에 실려있습니다.  
http://www.navi-net.com/muyong/



# 조선무용통신

発行: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 中央舞蹈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4-33-14 TEL03-3817-0431  
제2호 (루게 제2호) 주제 88 (1999)년 6월 7일 (화)

## 《문예동결성 40돐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6월29일 (화) 문예동 결성 40돐을 기념하는 예술공연 및 전시회 《한마음》이 東京王子의 北とびあ에서 진행됩니다.

이역땅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찬란한 민족문화와 전통을 꽃피워온 우리 재일동포문학예술인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동포들을 위해 창작공연해온 우리 문예동맹원들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 우리 동맹조직의 결성 40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공연에 앞서 기념모임이 있으며 기념공연에는 무용부와 음악부, 금강산가극단과 가무단 그리고 동포예술소조들이 출연하며 기념전시회에는 미술작품 30여점, 서예작품 60여점, 사진작품 50여점이 전시됩니다.

많은 문예동맹원들과 동포애호가들이 관람해주기 바랍니다.

기념모임: 6/29 (화) 오후 3:30 시작  
北とびあ つつじホール

기념공연: 6/29 (화) 오후 6:30 개연  
北とびあ さくらホール

기념전시회: 6/28 (월) 오후 3:00~7:00  
/29 (화) 오전 10:00~오후 6:30  
北とびあ 地下1階展示ホール



## 《무용지도교원강습회 진행》

무용지도교원 및 강사들의 강습회가 지난 4월25일에 간포, 도호꾸지방 5월9일에 도카이, 호꾸싱지방 5월16일 강끼지방들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60교 (초, 중, 고) 에서 74명의 교원 및 강사들과 함께 12명의 문예동무용부 맹원들이 참가하였다.

강습에서는 총련중앙위원회 제18기 제2차회의 결정을 관철하며 무용교육을 통하여 민족성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벌려나갈데 대한 강의와 토론, 1999학년도 학생예술경연대회에 대한 해설과 실기가 있었다.

오는 6월13일에는 주시고꾸, 규슈지방 강습이 히로시마현본부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선무용합동공연》을 조직하면서

문예동오사까무용부 부장 임수향

우리 오사까 조선무용애호가회가 주최하는 《朝鮮舞踊大阪合同祭》— 공화국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채리티공연 《봄바람에 실어서》가 지난 4월1일 森之宮ピロティホール에서 1.000여명의 관람자를 동원하여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습니다. 출연단체대표와 문예동부위원장, 무용부장, 부부장, 가무단의 17명으로 실행위원회를 꾸려 5번에 걸친 회의를 가졌으며 입장료는 물론 광고조직사업, 선전물의 디자인, 공연연목협의 등 많은 토론

우리가 이 공연을 조직하게 된것은 지난 3년간에 있는 조국 선생님에 의한 《조선무용강습회》가 계기로 되었습니다.

이 강습을 통하여 조선무용기본동작이 정비되고 기초동작 1단계, 2단계 그리고 민속춤가락을 새로 배웠으며 무용운동도 폭넓게 전진한 감이 듭니다.

오사까지방의 무용애호가들 역시 강습을 통하여 조선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한마당에서 귀중한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중급부부터 성인까지의 단결과 결속이 굳어졌습니다.

조국의 무용가선생님들에게서 지도를 받으면서 비록 몸은 바다 건너 멀리 이국땅에 있어도 우리가 추는 조선무용속에 조국이 살뜰하게 살아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조국이 있음으로 이렇게 마음껏 춤을 출수 있는데 그 조국이 계속되는 자연재난을 입어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고생을 겪어 있는데 가만히 있을수 없어 이번공연을 발기하게 된것입니다.

이번 채리티공연은 조선무용강습회의 총화로 하기 위하여 조선무용을 하는 단체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가무단, 문예동을 비롯한 여러 연구소, 무용교실, 지역소조에서도 앞장서있는 념맹, 조청소조 그리고 작년도 학생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한성적을 쟁취한 현하 우리 학교 3학교가출연하였

을 거듭하였습니다. 입장권판매와 광고는 출연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후방사업, 작품지도, 출연, 환경꾸리기 등 모든 사람들이 하나이상 분공을 맡아 공연을 성공시켜 조국의 수재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달라붙었습니다.

이 공연을 위하여 새로 창작한 오사까 조고 무용부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짧은 동안에 토론을 거듭하여 창작함으로써 공연의 중심연목으로 되었습니다. 또한더 이상 갈라져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을형상한 강휘선조선무용단 《날새의 〈형제별〉》은 쉬는 날에도 연습에 땀을 흘린성과가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또한 니시오사까초급학교, 마이(舞)조선무용연구소, 나까니시무용교실은 이역에서도 조선무용이 대대로 계승되어있는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엔, 3.000엔의 광고를 많이 받아 내어 작품지도와 출연을 해준 문예동녀맹조와 가정일을 뒤에 미루고 일주일에 몇번씩이나 연습을 해온 념성동맹 조또지부 무용소조어머니들의 열성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나까오사까중급학교 학생들, 조은무용소조동무들, 문예동무용부 맹원 그리고 공연사회로부터 무대뒤사업, 출연 등

다방면적으로 보좌해준 가무단 동무들 등 모든 출연단체들이 공연성공을 위해 남다른 열성을 발휘하였습니다. 공연당일 로비에는 수재지원사업에 나선 재일동포들의 사진을 전시하였으며 이번 공연에 출연하는 각 단체의 호소문 등을 전시하여 분위기를 돋구었으며 거기에 모금통을 설치하였습니다. 효고의 동포녀성은 인형판매를 하여 공연을 안받침해주었습니다.

가무단 동무의 사회로 이번 공연취지를 설명하고 휘나레에서 공연 리득금과 인형판매정형을 소개하니 막을 내리는 순간에

도 무대에까지 나와 모금통에 돈을 넣어 주시는 동포, 돌아갈 때 현관에서 모금을 해주시는 동포도 있었습니다. 무대와 객석 이하나로 된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의 리득금 200만엔으로 쌀과 우유가루를 구입하였으며 그를 전하기 위해 4월29일 비행기로 실행위원 대표 2명이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문예동오사까 무용부는 이번 공연조직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지역 문예사업에 살려나가 민족문화운동을 더 크게 벌려나가겠습니다.

- 문예동도카이지부 -

## 《첫 대외공연》에 출연

문예동 도카이지부 무용부는 3월 7일 처음으로 대외공연에 참가하였다.

《쟁강춤》, 《사물놀이》, 《민요련곡》등을 피로한 출연자들은 조선의 무용, 민족악기, 민요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일본사람들에게 안겨줄 일심으로 춤을 추며 노래불렀다.

공연을 본 어느 일본사람은 《저도 한번 장고를 쳐보고싶다》고 하면서 장고를 만져 보기도 하였으며 《조선무용이 아주 곱다, 참 좋았다. 다시 한번 보고싶다》고 감상을 말하였다.

이날 공연에 출연한 맹원들은 앞으로 연습에서 계속 많은 땀을 흘려 조선무용의 우월성을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나갈 결의를 다지군 하였다.

한편 3월 17일에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소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이 끝난후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장고, 북, 징, 쟁파리 치는 법을 배워주면서 민족악기를 직접 다룰수 있도록 하였다.

## 대외공연에 참가하면서

문예동 도카이지부 무용부 오 금

문예동에서 대외공연에 출연해보지 않겠는가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저의 마음은 1살이되는 딸이 있고 오래간만에 (출산후 처음으로) 무대에 선다는 불안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러니 인차 《무대에 서겠다》는 대답을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무용부장에게 상담을 하니 성인조어머니들은 모두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연습과 공연에 참가하니 걱정없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출연자들이 딸을 돌봐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지나름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여 문예동의 첫 대외공연에 출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공연당일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하지 못했으나 우리 무용에 다시 접할수 있었던 기쁨 마음과 상쾌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무용부동무들의 협력없이 이번 무대에 서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일상적으로 연습에 잘 참가하여 문예동사업에 적극 나서자고 결의다지고 있습니다.

# 《조선무용의 매력을 안겨주는 연구소로》

김영란무용연구소 소장 김영란

지난 3월 26일 도포의 가메아리 리리오홀에서 김영란무용연구소 제2차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4살부터 50살까지 34명의 연구생들이 출연하였으며 조선민속무용기본동작과 기성작품중에서 6작품, 발표회를 위해 창작한 6작품들을 피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회를 찾은 400여명의 관람자들은 연복마다 따뜻한 성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연구생들이 긴장하나머지 일상시 편마해온 성과를 충분히 발휘 못할가봐 걱정이 앞섰으나 막상 발표회 막이 오르니 연구생들은 마치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날개펴고 마음껏 춤을 추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 나어린 4살, 7살, 8살 아이들은 자기가 담당할 역형상을 위해 자각적으로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거울앞에서 이 동작, 저 동작 확인하는 모습은 우습기도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최고령인 연구생은 젊은 시절부터 크라식크, 모던, 흐라멘코 등 많은 춤을 추어왔지만 어느 춤보다도 조선의 민족무용에 매혹되었으며 우리 장단은 심장속깊이에 울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선무용의 매력을 느끼고 애착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길수 있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깊일수 있는 연구소를 지향하여 어떤 대상에도 대응할수 있는 지도방법과 지도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더 노력을 해나갈 결의를 가다듬고있습니다.

## - 문예동도포 무용부 - 《흥성거리는 연습장》

1997년 12월 21일에 문예동도포 제4차 무용발표회를 가진 후 이곳 무용부활동은 이전보다 한층 활기를 띠고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연습은 초청동무들을 중심으로 가무단, 교원, 강사 등등 수많은 맹원들로흥성거리고있습니다.

작년말부터 올해초에 이르러 조국에서 진행된 문예일군강습회에는 김수란, 리영화 동무들이 참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금 초청동무들속에서 핵심적역할을 높고있습니다.

발레, 기초동작, 기본동작에 땀을 흘린 후에는 조국작품들과 문예동에서 창작된 작품들의연습을 하면서 안삼불수준을 높이고 형상성을 배양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무용부는 올해들어 조선무용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는 《장단》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 2월부터 한달에 한번 전문가를 초청하여 장단기초를 배우으로써 보다민족적으로, 보다 룰동적으로 춤출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있습니다.

2월 26일에 열린 《2월의 예술의 밤》에는 가무단동무들과 함께 김선혜, 김수란 동무들이 출연하여 동포들의 대절찬을 받았습니다.

연습장에는 매주 장단소리, 음악소리와 함께 발랄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 15년간이 집대성된 무대

최무용연구소 15주년기념발표회

최무용연구소 소장 최민세

1999년 3월 28일에 진행된 《최무용연구소 15주년 기념발표회》는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력 밑에 연구생과 지도성원들의 15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열매맺은 아주 훌륭한 무대로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무대는 평소의 꾸준한 노력과 해마다 쌓아올린 축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돌이켜보는 마당이 되었습니다.

우리연구소가 거둔 지난 15년간의 성과는 많으나 그 속에서도 해마다 발표회를 빠짐없이 진행해왔다는것이 큰 자랑의 하나입니다.

해마다 발표회를 가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한 기초훈련과 함께 무대를 수많이 경험한다는것은 연구생들의 기량과 예술적수준을 높이는데서 필수조건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연구생들은 무용작품을 통하여 일상시 기초훈련에서 배우지 못하는 춤가락들과 세련된 맛을 많이 체득하게 되었으며 지도성원들은 창작능력을 부단히 발전시켜나갈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간 연구소가 창작해낸 작품은 수다하며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고있습니다.

시대가 부단히 변화발전되고 동포들의 구성과 요구가 다양화되어나가고있는 조건에서 금강산가극단, 지방가무단, 학교소조, 지부소조와 함께 각 연구소의 임무와 역할도 중요하게 나서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지난 15년간에 쌓아올린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하여 민족의 넋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며 지도와 창작 활동을 계속 활발히 벌려나가겠습니다.



朝鮮風居酒屋

# 三味

東京都足立区栗原 3-30-6  
TEL 03-3856-1356

チヨンシル・ホンシルネットワーク会報  
「響・향」 2号

# 響音

同胞結婚相談中央センター  
TEL 03-3818-7001  
http://www.navi-net.com/hyan/  
hyan@navi-net.com

Computer Total Service **CAST**

初心者のためのパソコン総合サービスです。  
TEL 03-3733-0742 FAX 03-3733-0791

http://www.navi-net.com/cast/  
cast@navi-net.com